

ML 진출 첫 발 광주출신 강정호

“이 방망이로 쏘 야수 편견 깨드립니다”

넥센, 500만 달러 포스팅 금액 수용

“체력훈련 집중... 힘으로 밀리지 않겠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향한 첫 단추를 잘 끼운 강정호(27·넥센)가 ‘빅리그 유격수’에 대한 도전 의지를 불태웠다.

강정호는 21일 목동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야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 겨울에 잘 준비해서 가서 보여주는 것만 남았다”고 밝혔다.

넥센은 전날 메이저리그 구단이 포스팅(비공개 입찰)을 통해 강정호를 영입하겠다고 써낸 최고응찰액 500만215 달러(약 55억원)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포스팅 액수를 들었을 때 소감은

▲‘진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제부터 도전이라는 것이 와 닿았다. 이제 시작이다.

-어느 팀인지는 모르나. 개인적으로 원하는 곳은.

▲나도 궁금하다.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에 갔으면 좋겠다.

-류현진과 통화는 했다.

▲어제도 만났다. 류현진은 내게 별로 관심이 없다. 만약에 가서 다른 팀으로 만나게 되면 무조건 작구를 던지라고 해놨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진이 더 잘하고 있다. 확실히 현진은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생각이 없는 건지 정신력이 강한 건지는 모르겠다.(웃음)

-2루수로 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작은 유격수로 하고 싶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2루보다는 더 편한 3루로 가고 싶다.

-일본 출신 야수들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그런 편견을 제일 먼저 깨고 싶다. 체력적 준비를 많이 할 것이다. 타구 질 문제는 가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빨리 적응해서 잘할 거로 생각한다. 내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솔직히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일단 겨울에 잘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본다.

-현지에서 강정호의 어떤 면을 좋게 평가했을까.

▲ 유격수로서 장타력이 돋보였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믿고 쓸 수 있는 선수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나를 신뢰해 주시지가 관건이다.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 아시아 내야수는 대부분 안 좋게 끝났다. 게다가 한국 선수로서(포스팅 방식으로) 처음이라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 이니까 제가 잘해야 다음에 오는 한국 선수들이 미치지 좋아진다. 한국 야구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다.

-어릴 때부터 메이저리그를 생각했다.

▲ 솔직히 ‘내가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항상 ‘너는 메이저리그에 가야 한다’며 각인시켰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건데, 솔직히 메이저리그에 갈 줄 몰랐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출신 4번째 ‘메이저리거’ 탄생 임박

광주일고의 4번째 메이저리거 탄생이 임박했다. 한국 프로야구 야수 사상 처음으로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시스템에 참가했던 광주일고 출신의 유격수 강정호(27·넥센)가 500만215달러(약 55억원)의 최고 응찰액을 받아들였다.

넥센이 포스팅 금액을 수용함에 따라 강정호는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구단명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아 30일 동안 연봉협상을 벌이게 된다.

500만215달러는 역대 포스팅시스템에 참가한 한국 선수 중 최고 기록을 세운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257만

7737달러33센트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전제 야수들을 보더라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 최고의 외야수 스즈키 이치로가 2000년 말 1312만5000달러로 야수 최고 금액을 작성했고, 지난 2010년 일본 니시오카 쓰요시가 532만9000달러를 기록했었다.

투수들에 비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던 야수지만 강정호는 올 시즌 포스팅에 나선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 가장 높은 금액이자 역대 메이저리그 야수 세 번째 금액을 기록, 빅리그 무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앞서 SK의 좌완 김광현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제시한 응찰액 200만 달러를 수용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KIA 좌완 양현종은 기대에 못 미친 150만 달러 가량의 금액이 나오면서 구단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 핑크빛 전망 속에 광주일고는 4번째 메이저리거 배출이라는 경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광주일고는 1995년 정릉기 우승의 주역 서재용(3학년)·김병현(2학년)·최희섭(1학년)이 나란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으면서 ‘메이저리거 3인방’을 보유한 야구 명문으로 유명하다.

1997년 겨울 뉴욕 메츠와 계약을 맺었던 서재용 이후 10살 터울의 강정호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앞으로 광주일고는 ‘메이저리거 4인방’으로 통하게 된다.

3/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역대 최연소 출신원은 만 4세

1999년 크리스찬 카펜터...美 기네스북 기록

최근 미국의 103세 노인인 출신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 다이제스트는 20일 “골프 관련 진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네스북 공인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며 흥미로운 다른 기록들을 보도했다.

먼저 103세 노인의 출신원 기록에 대비되는 최연소 출신원 기록으로는 1999년 만 4세였던 크리스찬 카펜터라는 소년이 세운 것으로 나와 있다. 카펜터는 당시 나이가 만 4세 195일이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허커리의 마운틴뷰 골프장에서 출신원을 기록했다.

하루에 가장 많은 홀을 돈 기록은 무려 851개 홀이다. 로브 제임스라는 사람이 세운 이 기록은 캐나다 에드먼턴의 빅토리아 골프코스에서 세워졌으며 851개 홀은 하루에 47라운드 이상을 돌았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 골프 대회에서 한 라운드를 도는데 4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정상적인 속도로 볼 수 있다.

1주일에 가장 많은 홀을 돈 기록은 2000홀이다. 2011년 여름에 수립된 이 기록은 지노 보날리라는 사람이 세웠으며 보날리는 1주일에 가장 많은 버디(493개)를 잡은 기록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무 빨리 가버린 친구를 추억하며

프로야구 88동이가故 이두환 추모 쇼아암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프로야구 ‘88동이’들이 먼저 떠나간 친구 이두환을 추억하며 다시 모였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치킨집에서 암환자 돕기 일일호프가 열렸다. 행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들은 2006년 쿠바에서 열린 제 22회 세계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청소년대표 출신들이었다.

양현종·김선빈(이상 KIA), 임태훈·이용찬·김강(이상 두산), 이재근·이상화(이상 롯데), 김광현(SK), 임익준(한화), 김재율(LG), 김남형(넥센) 등 88년생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88동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89년생인 막내 김선빈은 화순고 2학년 당시 3학년이었던 형들과 태극마크를 달면서 ‘88동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추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한 곳에 모인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 이들이 기억하는 친구는 ‘4번타자’ 이두환이다.

이두환은 장충고 시절인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 중심타자로 활약하며 눈길을 끈 거포였다. 2007년 두산에 입단했던 그는 2011시즌 이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선수가 됐다. 하지만 대퇴골두육종으로 투병을 하면서 끝내 새 유니폼을 입지 못했다.

‘88동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21일 투병중이던 친구 이두환을 돕기 위해 자신경기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이날, 이두환은 친구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24살의 젊은 나이에 별이 됐다.

4번 타자를 떠나보낸 이들은 친구를 기억하며 지난해 자신 일일호프를 열고 쇼아암 어린이를 도왔다. 올해도 그 마음은 이어졌다.

2013시즌부터 친구의 이니셜 DH를 모자에 새기고 마운드에 서고 있는 양현종과 22일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선빈도 두 번째 행사가 참가해 이두환을 기억했다. 한편 일일호프와 경매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암환자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3/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6년 제 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88동이’들이 지난 20일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친구 이두환을 기리는 일일호프를 열었다. 사진은 2006년 대회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허세현 대표팀 감독을 행가레치고 모습. <광주일보 DB>